

■ 주요 뉴스: OECD,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 유지.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금리인상 강조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의 금리인상 폭은 축소될 필요,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
- 중국, 코로나 19 감염 증가세 지속. 광저우 및 베이징 일부 지역은 봉쇄 조치 강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의사록 발표 앞두고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1.4%],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및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및 광산관련주 강세 등으로 3개월래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6%,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52.8원, -3.9원) 0.3%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11/22일	11/21일	전일대비			11/22일	11/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03.6	3,949.9	1.36%	국채금리 10y	미국	3.76%	3.83%	-7bp
	유럽	436.22	433.06	0.73%		독일	1.98%	1.99%	-2bp
	중국	3,088.9	3,085.0	0.13%		영국	3.14%	3.19%	-5bp
	일본	28,116	27,945	0.61%	CDS 5y	한국	53bp	55bp	-2bp
	한국	2,405.3	2,419.5	-0.59%		중국	81bp	84bp	-3bp
	달러지수	107.17	107.84	-0.62%	위험지표	EMBI+	-	406	-
유로화	1.0306	1.0242	0.62%	VIX		21.28	22.36	-4.83%	
환율	엔화	141.18	142.14	0.68%	WTI유	80.95	79.73	1.53%	
	위안화	7.1399	7.1653	0.36%		원자재	구리	362.0	357.2
	원화	1,356.6	1,354.7	-0.14%	금		1,740.5	1,738.1	0.1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OECD,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 유지.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금리인상 강조

- 금년 및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1%, 2.2%로 제시. 이는 9월(각각 3.0%, 2.2%)과 비교하여 각각 소폭 상향 및 보합. 내년 세계경제가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반면 '24년(2.7%)은 '23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
- 피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최우선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 대응이라고 진단. 고물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을 대비하여 각국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또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신용여건 악화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 국가별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1.5%, 0.5%→1.8%, 0.5%), 유로존(3.1%, 0.3%→3.3%, 0.5%), 중국(3.2%, 4.7%→3.3%, 4.6%), 일본(1.6%, 1.4%→1.6%, 1.8%) 등 대부분의 경우 9월에 비해 조정 폭은 제한적
-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한 가계 저축과 유로존에서 특히 확대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향후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정책도 통화정책과의 공조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

-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비해 낮아 임금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첨언
- 캔사스시티 연은의 조지 총재는 가계의 저축 규모가 많은 편인데, 이는 위험 관련 완충 역할을 하지만 소비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의 금리인상 폭은 축소될 필요.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

- 매파적 성향의 나겔 총재는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0.50%p 금리인상이 강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발언. 이는 이전의 0.75%p 인상보다 낮은 수준. 다만 금리 수준은 경제를 제약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 양적긴축은 내년 초 시행 예상

■ 유럽위원회, 가스 가격 상한제 초안을 제시. 내년부터 1년간 지속할 계획

- 이번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전망. 또한 상한은 1MWh당 275유로로 최근 가격(120유로 내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다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코로나 팬데믹 지원 정책 지속 시 한계기업 양산할 우려

- 각국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지원이 한계기업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데 채무불이행 기업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평가

■ 독일과 프랑스,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대한 유럽의 강력 대응이 필요

- 독일의 하벡 경제장관은 유럽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편 프랑스의 르메르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은 무역전쟁을 생각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

■ 중국, 코로나 19 감염 증가세 지속. 광저우 및 베이징 일부 지역은 봉쇄 조치 강화

- 11/21일 신규 감염자는 27,307명으로 4월초 이후 최고치. 남부지역 광저우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했고, 베이징 역시 1,426명의 감염자가 발생. 당국은 감염자 급증 지역에 휴교, 공장 폐쇄 등의 봉쇄 조치를 강화
- 한편 중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익일물 거래량 가중평균 레포금리가 0.8532%로 작년 1월 이후 최저. 이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도 일부 반영

■ 호주 중앙은행 총재, 상당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 변동성 지속될 전망

- 로우 총재는 글로벌 요인들에 의해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 또한 통화정책 여건도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3 현지시각 기준)

- 11월 FOMC 의사록, 미국 및 유로존 11월 S&P 글로벌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유럽의 무역, 증가세 지속 예상. 글로벌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불확실 - WSJ (U.S.-Europe Trade Booms as Old Allies Draw Closer)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서방 관계 악화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 이는 세계경제 성장 모형의 수정을 고민할 정도로 큰 변화
- 유럽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차지했던 미국의 제1수입국 자리를 올해 들어 탈환했으며, 미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유럽으로의 최대 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 미국의 대유럽 직접투자와 유럽의 대미 직접투자 모두 큰 폭 증가
- 미국-유럽 간 교역·투자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각자의 자국우선주의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양안의 경제적 협력 심화 또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근본적 재편에까지 이르는 것은 어려울 소지

■ 중국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 세계 금융시장에 경종 - Financial Times

(Covid/China: fear of contagion still worries world markets)

- 중국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상황이 연준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기대했지만,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
- 특히 주요 제조 설비가 밀집해있는 광저우 지역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진원지로 부상. 이는 전세계 공급망 차질 증폭으로 이어지는 한편 중국 내 생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으나, 중국의 코로나 19 감염과 봉쇄 강화는 다시 한 번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연준의 양적완화, 편익 대비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 - 블룸버그

(It's Now Clear That QE Was a Colossal Policy Mistake)

- '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장기채 매입 등을 통해 양적완화를 단행. 학계에서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이었는지 의문을 표명. 또한 최근 들어 양적완화 종료 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위협받는 등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부각
- 양적완화는 장기금리를 왜곡시켜 정확한 위험평가를 저해하고, 인위적 금리하락으로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문제 초래. 아울러 정부부채의 화폐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양적완화 시행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

■ **유럽의 가스 가격 상한제, 가격 급등 방지 효과는 불확실 - Financial Times**

(EU's proposed cap on gas prices labelled 'a joke non-cap')

- EU는 8월과 같은 극심한 에너지 비용 급등을 예방을 위해 가격 상한제를 제안. 이에 따르면, 메가와트시(MWh)당 275유로가 상한선이며 가스 가격이 해당 상한선을 2주 이상 상회할 경우 가격 상한제가 발효
- 그러나 금년 여름 러시아가 독일에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했을 당시 가스 가격이 기록적으로 폭등했으나 MWh당 275유로를 상회한 것은 일주일에 불과. 당시 가격 상한제가 있었다라도 가격 급등을 막지는 못했을 소지
- 이에 일각에서는 EU의 에너지 위기 대처 관련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러한 가격 하락 노력이 오히려 가스 수요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또한 가스 공급 업체들은 이익 마진이 감소하여 건전성 악화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가계의 저축 규모 감소세,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필요성을 시사 - 블룸버그**

(Fed Hawkishness Peaks as Rising Debt Payments Erode Savings)

■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에너지 부족 및 재정부담 가중을 초래 - WSJ**

(Europe Pays for Green-Energy Illu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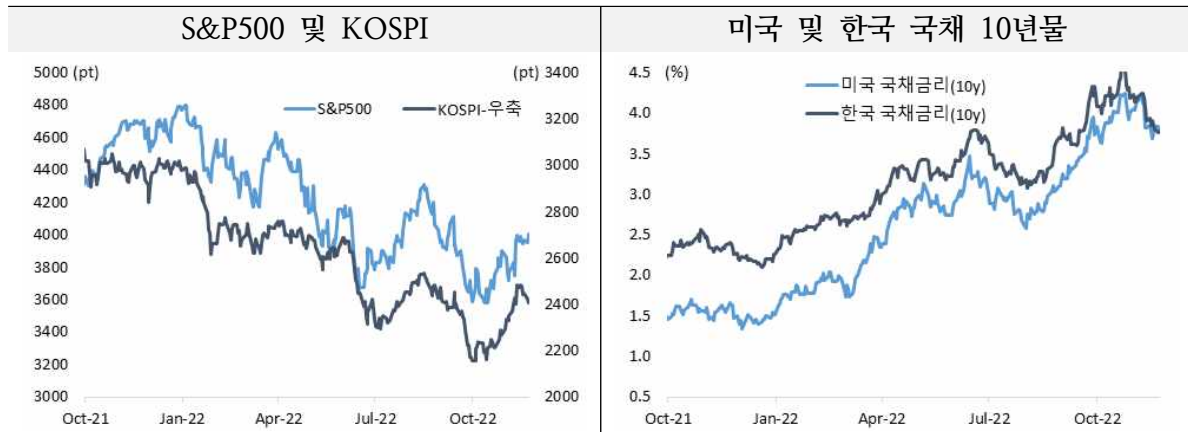
■ **영국 경제, 공공지출 확대 불구 경기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 - Financial Times**

(UK public borrowing rises as energy cap takes effect)

■ **홍콩 증시, 중국의 기술기업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 확대 예상 - WSJ**

(Hong Kong's Stock Market Is on a Wild Rid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